

강의도 코딩도 없이

평범한 직장인이 무료 AI만으로
콘텐츠를 만들게 된 9개월

강의도 코딩 지식도 없이, 평소 쓰는 말로 AI에게 묻기만 했습니다. 유료 구독 두 개를 차례로 끄고, 한두 시간 걸리던 반복 작업을 30초로 줄인 — 코드 한 줄 못 쓰는 평범한 직장인의 무료 AI 활용기입니다.

▶ 유튜브 **머니바이트** @Moneybitee2

🌐 블로그 **moneybitee.com**

📺 영상 한 편 **조회수 50만+**

삼성 반도체 평택 사이트 · 설비 엔지니어 (교대근무) · 김기만

이원

“이거, AI한테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?”

월급은 정확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늘 부족했습니다. AI는 매일 뉴스에 나오는데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죠. 배워보려고 찾아보니 세상은 강의에서 템플릿으로, 다시 'AI 설치 대행'까지 무언가를 끝없이 팔고 있었습니다. 결제 직전, 의심이 들었습니다. **그래서 강의를 사는 대신, 강의비 0원으로 AI에게 직접 물어보는 길**을 택했습니다. 저는 지금도 코드를 한 줄 못 씁니다. 그래도 됐습니다.

한 일 ① — 유료 구독을 끄고 '무료 스택'으로

매달 내던 유료 구독

영상 편집 구독 월 ~20,000원

캡컷(CapCut) 유료 월 19,800원

유료 음성 서비스 검토만



무료로 바꾼 도구

음성 · Google Vertex AI 무료 크레딧

자막 · Whisper(오픈소스) 0원

편집 · 캡컷 무료 버전 0원

매달 약 40,000원 → 0원

전문 용어 대신, 그냥 평소 말로 물었다

막히는 곳마다 “이거 공짜로 하는 법 없어?”를 먼저 물었고, AI가 길을 알려줬습니다.

1

음성

유료 음성 구독 대신, AI에게 물어 구글 Vertex AI의 무료 크레딧으로 내레이션을 직접 만들었습니다.

2

자막

‘내 컴퓨터에서 무료로 자막 다는 법’을 물어, 오픈소스 워스퍼(Whisper)로 자동 생성했습니다.

3

이미지

반복 작업을 ‘검색→고르기→저장’ 세 줄로 적어 “이걸 대신 해줘”라고 했더니 대신 해줬습니다.

한 일 ② — 제일 귀찮던 반복을 AI에게 넘겼다

자료(이미지) 모으기 — 영상 한 편 기준

1~2시간

사이트 50~100개를 직접 돌아다님



30초

대본을 넣으면 AI가 알아서 수급

한 가지 습관도 생겼습니다. AI의 답을 곧바로 믿지 않고, 같은 질문을 여러 곳에 던져 공통된 답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. 그래도 안 맞으면 공식 안내를 직접 찾습니다.

기사 한 꼭지가 1분 영상이 되기까지

뜬구름이 아니라, 실제 순서입니다. 각 단계가 '무료 부품'이고, 누구나 이대로 조립하면 됩니다.

1

주제 고르기

그날 경제 뉴스에서 한 꼭지

사람

무료

2

대본 쓰기

AI에 "이 기사 1분 영상 대본으로" → 여러 번 고쳐쓰기

ChatGPT · Claude

👉 사람 손 多

3

내레이션(음성)

완성 대본을 넣으면 음성 자동 생성

Google Vertex AI

무료 크레딧

4

자막 달기

그 음성을 넣으면 자막 파일 자동 생성

Whisper(오픈소스)

무료

5

이미지 수급

대본을 통째로 넣으면 장면별로 알아서 수집 (2시간→30초)

Gemini + 검색

무료

6

편집

음성·자막·이미지를 엮고 컷·강조 다듬기

CapCut(무료)

👉 사람 손 多

7

발행

유튜브 업로드

YouTube

무료

같은 원리를 글과 카드로 넓혔다

영상에서 통한 방식 — “반복은 AI에, 마지막은 사람이” — 을 블로그와 카드뉴스에 그대로 옮겼습니다.

블로그 글 발행

- 1 **주제 한 줄**
AI가 사실 검증 + 글 각도 잡기
- 2 **본문 초안**
개념 → 실전 → 판단 + FAQ
- 3 **차트·이미지**
자동 생성으로 본문에 삽입
- 4 **내 검수 → 공개**
👉 비공개로 올려 직접 읽고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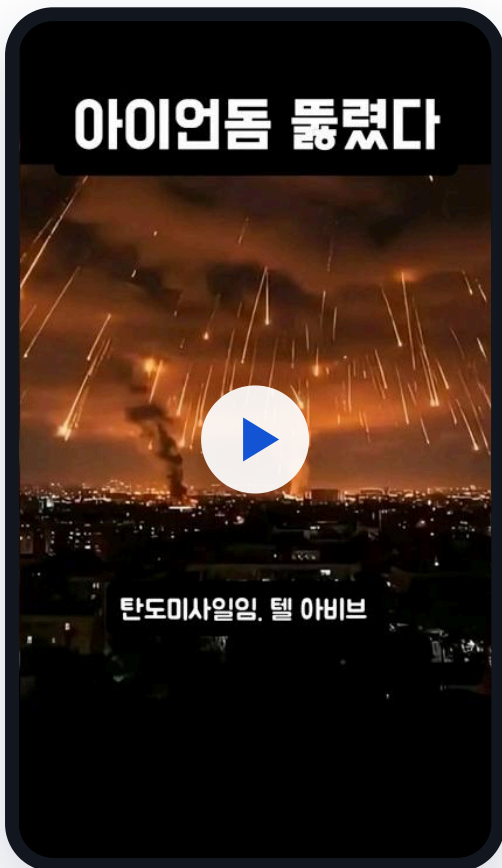
카드뉴스 발행

- 1 **기사 1건**
존댓말 캡션 + 카드 5장 문안
- 2 **자동 렌더**
브랜드 색으로 카드 이미지 생성
- 3 **동시 발행**
스레드 · 인스타그램에 한 번에
- 4 **사람의 10%**
👉 문안·톤 마지막 점검

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. **반복되는 손일은 AI에게 맡기고, 사실 판단과 마지막 마무리**는 제가 합니다. 그래서 발행 버튼은 늘 사람이 누릅니다.

평소 1,500회 채널에서, 한 편이 50만

5개월 넘게 1,500~3,000회를 오가던 채널이었습니다. 2026년 3월, 평소처럼 올린 한 편이 —
자고 일어나니 50만이었습니다.



51만+

영상 한 편 조회수

140 → 1,000+

구독자 (그 영상 전후)



채널
@Moneybitee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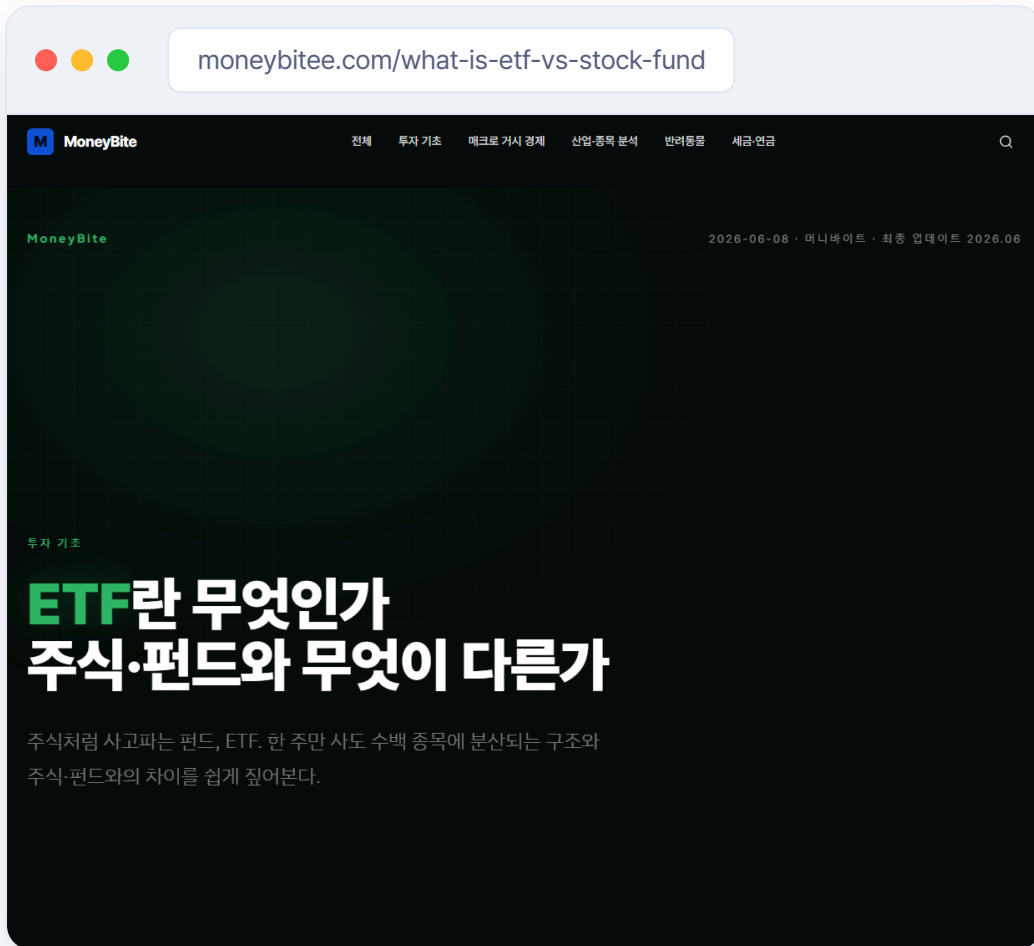


50만뷰
영상 보기

운은 절반입니다. 소재와 타이밍은 운이었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— 조회수가 보상을 안 주는
5개월 동안에도 무료 도구로 공정을 계속 돌려, **'복권을 계속 살 수 있는 몸'**을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
다. 당첨은 운이지만, 매주 복권을 사는 건 시스템입니다.

영상에서 멈추지 않았다 — 글과 카드까지

실제 블로그 글 · moneybitee.com



글 보러가기

「ETF란 무엇인가」
초보 투자자용
에버그린 글

실제 카드뉴스 · 스투드 & 인스타그램 발행 (기사 1건 → AI 자동 제작)



위 카드 5장은 기사 한 건을 넣으면 친근한 존댓말 캡션과 함께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. 팔로워가 적어도, 잘 만든 카드 한 세트가 **조회 수만 회**로 퍼지기도 했습니다.

90%는 AI, 마지막 10%는 사람

90% — AI가 만든다

10% 사람

- 1 강의 대신 직접 물었다. 전문가 없이, 끈질긴 질문으로 독학했습니다.
- 2 한 폰도 안 들어려 했다. 유료가 보이면 늘 '공짜로 하는 법'을 먼저 찾았습니다.
- 3 복잡한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것. 군 통신병 시절 내선 회선 60여 개를 석 달간 직접 표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.
- 4 마지막은 사람이 한다. 그 10%가 결과를 가르다고 믿습니다.

그냥 모든 걸 AI에게 맡겼다면 안 됐을 겁니다. **AI가 준 수많은 선택지 중에 '내가 골랐기' 때문에** — 같은 방식으로 출품한 한 공공데이터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습니다. AI는 노예가 아니라, 매우 유능한 동료입니다.

⑥ 확장성 — 누구나 같은 부품으로

무료 크레딧, 오픈소스, 무료 AI — 누구나 같은 부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매주 한 번 **"이번 주에 제일 귀찮게 반복한 일이 뭐였지?"**만 물으면, 그게 다음에 AI에게 맡길 일이 됩니다.

"강의를 사지 않아도, 코드를 몰라도요."

활용한 AI 도구

ChatGPT

Gemini

Claude

Perplexity

Grok

Google Vertex AI · 음성

Whisper · 자막

CapCut · 편집